

7.9mm 날씬한 바디 속 8개의 두뇌를 심다

삼성전자 '갤럭시S4' 美 뉴욕서 공개

최초 옥타코어 장착 소비전력 기존 70% 수준
5인치 441ppi 풀HD 슈퍼아몰레드로 화질 짱
시선으로 조작하는 스마트포즈 등 기능 도입
1억대 이상 판매 목표…국내 4월 경 출시 전망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략제품 '갤럭시S4'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개최된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뉴욕(미국) | AP·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4'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4'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디어와 협력사 등 3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갤럭시S4'는 2분기부터 전 세계 155여 개국 327개 사업자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4월 경 '갤럭시S4'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깜짝쇼 없었지만, 성능은 단연 최고

'갤럭시S4'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깜짝쇼'는 없었지만,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LG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 등 최신 전략 스마트폰과 비교해 앞선 성능을 자랑한다.

하드웨어도 최고의 성능으로 무장했다. '갤럭시S4'는 세계 최초 '옥타코어 프로세서폰'이다. 제품에 적용된 '엑시노스 5옥타'는 스마트폰 두뇌역할을 하는 집적회로(코어)가 8개인 칩. 4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저전력 코어가 작업 중인 프로그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3D영상이나 고사양 게임 등은 고성능 프로세서가 처리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상대적으로 소비전력이 적은 저전력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원리다. 때문에 동일한 작업을 할 때 고성능 프로세서와 비교해 최대 70% 수준까지 낮은 소비 전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판매 국가에 따라 쿼드코어 칩이 장착된 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디스플레이 해상도 또한 뛰어나다. '갤럭시S4'는 5인치 대화면에 441ppi의 풀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카메라는 전면 200만 화소와 후면 1300만 화소다.

이처럼 하드웨어 성능이 뛰어나지만 두께는 7.9mm, 무게는 130g에 불과해 다른 제품에 비해 휴대성이 좋은 편이다.

갤럭시 S4 vs 경쟁 스마트폰 스펙비교



	삼성전자 갤럭시S4	LG전자 옵티머스G프로	팬택 베가 넘버6
크기	136.6 x 69.8 x 7.9mm	150.2 x 76.1 x 9.4mm	158.6 x 83.2 x 9.9mm
무게	130g	172g	209g
프로세서	1.6GHz 옥타코어 또는 1.9GHz 쿼드코어	1.7 GHz 쿼드코어	1.5 GHz 쿼드코어
디스플레이	5인치 풀HD 슈퍼아몰레드(441ppi)	5.5인치 풀HD IPS (400ppi)	5.9인치 내츄럴 IPS Pro(373ppi)
카메라	1300만 화소	1300만 화소	1300만 화소
배터리	2600 mAh	3140mAh	3140mAh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4.2.2	안드로이드 4.1	안드로이드 4.1

●시선으로 조작…전 세계 1억대 판매 기대

사용자 경험(UX)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갤럭시S4는 예상대로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시선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스마트포즈'와 '스마트 스크롤' 기능이 도입됐다. 여기에 손가락을 이메일이나 사진 폴더 위에 놓으면 터치하지 않고도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에어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터치를 인식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카메라의 활용도도 다양해졌다. 특히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화상 통화도 즐길 수 있어 재미를 더한다.

이밖에 화면 위 손의 움직임을 적외선 센서로 인식해 전화를 받고 음악을 선택할 수 있고, 운전 중에는 블루투스를 통해 음성 조작을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4'가 전 세계 1억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갤럭시S'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과 맞먹는 수치다. 진짜 괴물폰 '갤럭시S4' 출시를 통해 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언팩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갤럭시S4'가 발표된 뒤 무대에 설치된 '핸드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삼성 허브' 등 신규 서비스 3종 공개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S4' 공개와 함께 신규 서비스도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 허브'. 이 서비스는 뮤직 허브, 비디오 허브, 리더스 허브, 게임 허브, 러닝 허브 등 기존 5가지 허브 서비스를 한 곳에 통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토어다. 유저는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콘텐츠를 통합검색하고 구매·관리 할 수 있다.

새로워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장터 '삼성 앱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연동돼 삼성 앱스의 앱 뿐 아니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까지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모바일 전시회 'MWC 2013'에서 '비디오 디스커버리'로 소개된 '삼성 워치온'은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 TV 사이에 끊김 없는 멀티스크린 감상 기능을 갖춘 서비스다. 김명근 기자

컬처박스

■ 새 책

조선시대 궁녀들의 숨겨온 삶 이야기



●궁녀의 하루(박상진 지음 | 김영사)

조선시대 궁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녀의 하루'는 견습 나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쥐부리 글려(밀떡을 동그랗게 만들어 입에 붙인 뒤 무명천에 고리를 만들어 마스크처럼 쓰고 다니는 행사), 봉급날 풍경, 혹독한 통과의례, 저녁도 굶어가면서 써야했던 궁체연습 등 한국사의 아웃사이더였던 궁녀들의 숨겨진 생활을 담아냈다. 구중궁궐서 왕만 쳐다보며 살아야 했던 궁녀들. 그들도 사람인지라 감춰진 그들만의 성생활이 있었다. 심지어 궁내 간통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왕실의 수족을 넘어 궁녀들의 인간생활과 그들이 남긴 삶의 편린을 읽기 쉽게 스토리로 엮은 것은 또한 이 책이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다.

해바라기 여인 슈코, 한 소녀에 빠지다



●잡동사니(에쿠니 가오리 지음·신유희 옮김 | 소담출판사)

남편만 바라보며 해바라기 여인으로 산 마흔다섯 살 슈코는 때때로 어머니와 단 둘이 여행을 떠난다. 어머니와 함께 떠난 휴양지에서 그녀는 바비 인형을 닮은 소녀를 만나게 되고 어린아이도 여자도 아닌 그 소녀만이 내뿜는 매력에 시선을 빼앗긴다. 그리고 이 만남을 계기로 슈코와 소녀, 그리고 슈코 남편과의 미묘한 관계가 시작된다. 이 책은 청아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 화법으로 국내 독자를 사로잡은 '냉정과 열정사이'의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이다. 사랑과 환희와 두려움.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의 실타래를 섬세하게 풀어냈다. 모든 사랑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기업을 왜 사원주주제로 운영해야 하나



●사장의 회사 vs 사원의 회사(데이비드 에르달 지음·안진환 옮김 | 레인메이커)

이 책은 2008~2009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금융위기로 전 세계 기업이 인원을 감축하고 투자규모를 줄일 때 오히려 해마다 사원수를 늘리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올린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 기업들이 '사원주주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회사를 사원주주제로 전환한 경험을 바탕으로 왜 기업이 사원주주제로 운영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득력있게 전달한다. 현재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의 경영자라면 이 책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대기업의 경영자들에게는 기업과 사원, 중소기업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단 한번 '뉴 맨'!! 평생 단단한 놈!!



대표이사 서영숙

www.newm.kr

NAVER 뉴맨

네이버에 뉴맨을 검색하세요.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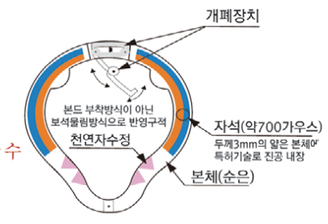
▶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서에서 20대는 하루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의 성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낸바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 남자가 변한다!
'뉴 맨'은 젊고 발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 강직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이상의 남성에게 믿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단단하고 강해져 횟수와 시간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준다.

▶ 최장! 최다의 기록! '뉴 맨'!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받은 '뉴 맨'은 2005년 각종신문매체에 광고 판매를 시작, 현재 8년간 8천여회의 신문광고로 단일제품 사상 전무후무한 최장기간, 최다매체의 광고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여개국 수출, 50만 고객돌파의 쾌거도 이루었다. 50만 고객의 의미는 100만 고객일 것이다.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동·정맥위치와 역할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상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뉴맨 단면도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써 새벽의 강한 발기와 관계시의 힘찬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5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몸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8년간 지켜 온 뉴맨의 약속!'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이 약속은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국내유일 '성기능강화용 링' 특허 획득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

뉴맨! 50만 고객돌파 전세계 20여개국 수출!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